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Cognitive Survey about Student Employment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

노 영 희 (Younghee Noh)**

심 효 정 (Hyo-Jung Sim)***

곽 우 정 (Woojung Kwak)****

목 차

- | | |
|-----------------------|------------|
| 1. 서 론 | 5. 결 과 |
| 2. 선행연구 | 6. 논 의 |
| 3. 사서자격자 양성 및 교육기관 현황 | 7. 결론 및 제언 |
|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헌정보학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취업준비도,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취업희망분야는 도서관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희망지역은 출신대학의 소재와 관계없이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현장기반 취업프로그램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에 대한 애로사항은 취업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조건, 정년보장, 복리후생,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정보 시스템의 구축, 현장기반 교육과정의 강화, 그리고 지방의 취업여건 및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s Students are including their cognitive for the employment prospects of library information, it wants to know satisfaction with current curriculum, job preparation, and requirements for job - related programs. The result, first of all, the students of the field of employment hope was that the library was the field of employment and the public library was the highest one of them. Second, areas of employment were that the Seoul Gyeonggi-do Province showed the highest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hird, the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curriculum is high. It appeared to be desirable that was field - based employment program. Fourth, The difficulty in preparing for employment was the lack of employment information. Fifth, The factors influencing job choice were working conditions, retirement benefits, welfare benefits, and remuneration. Therefore,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students, it was required by the establishment of job information system, reinforcement of field - based training courses, and improvement of local employment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키워드: 문헌정보학과, 학생취업, 인식조사, 고용전망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Employment, Cognitive Survey, Employment Prospects

* 본 연구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 취업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한국도서관협회 과장(shjcap@kla.kr) (교신저자)

****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woojung2243@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7년 1월 23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69-102,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1.069]

1. 서론

사서직의 취업전망이 밝은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타 분야의 취업전망도 밝지 않은 것은 때 한가지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취업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서직 취업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는 미래 유망 직종인 인공지능으로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직업전망 보고서의 고용 전망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직업 중 하나로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가 포함되어 있다.

사서직의 이러한 취업전망에 대한 근거는 첫째, 국정과제 중 문화융성 관련 사업(문화다양성 증진(다문화)), 생활문화 공간 조성, 문화유산 보존 강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고 있고, 사서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창조경제 과제 중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도서관,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둘째, 사서직은 장래 유망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모두 속하여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서관은 지역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인력 배출이 요구되었고, 사서의 역할 확대 및 발전이 예상된다. 넷째, 가트너의 10대 전략기술 키워드 중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특성화 사업이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 환경의 취업전망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문헌정보학과 취업률은 최근 3년 평균이 4년제 58.5%, 전문대 72.4%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 현황을 기초로 하는 도서관 현장의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서양성, 교육체계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헌정보학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취업준비도,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취업전망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정보학과의 취업전망에 관련된 연구 및 대학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정보학과 취업 전망과 관련된 연구내용으로는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및 개선방안 제안, 사서의 취업 전망에 대한 의견수렴, 해외 취업 전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문(2012)은 K대학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분석,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첫째, 사서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 둘째, 사서의 취업진로 확대를 위해 인구 5만명 당 공공도서관 1개관 시대를 조기에 열 것, 셋째,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및 BTL 사업화를 철회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노영희 등(2013)은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도서관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비율이 4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사서의 고용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로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지도와 취업멘토링, 인턴십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넷째, 학생들은 학업성적,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및 실습, 경력관리를 매우 중요한 취업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직·환경적 요인은 보수와 복리후생, 자기발전 기회부여,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조직의 발전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적성,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사회적 대우 및 인식, 전공일치여부, 직장과의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한 내용으로는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보완, 사서 취업분야별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연구, 사서연수에 대한 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인자(2003)는 지식기반사회에

서 우수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양성을 위하여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업무현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밝히며, 직무분석을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분야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경영론, 학교도서관운영론, 아동도서관,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법,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 실기교육방법론, 도서관협력 수업론,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론, 참고봉사론, 정보검색론, 인터넷활용, 서지학, 미디어활용교육론, 디지털도서관의 16개 과목을 도출하였다. 안인자 등(2012)은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사서의 취업분야별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직무 관련 교과목 운영에 관하여 국내와 북미 대학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취업분야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내 분석 자료는 사서대상 설문분석, 기 도출된 관종별 직무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사서 측면에서 도출된 핵심과목과 국내 3개 대학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직업별 진출을 위한 교과과정이었다. 국외 분석 자료는 미국과 캐나다의 6개국의 주요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출 분야별(Career Path) 교육과정이다. 연구 결과, 조사된 국내·외 교과과정 자료를 통해 교육계의 시각을 반영한 사서의 진로별 교과목이 관종별로 비교 분석되었다. 이신호, 양해술(2011)은 국내 유일의 사서교육훈련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교육업무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전국의 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서교육훈련시스템의 합리

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자 2,04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계자 면담, 자체 운영평가 등을 기초로, 사서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개편, 교수요원의 양성, 교육훈련 예산의 증액, 사이버 교육운영의 활성화, 평가시스템의 조정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 사서자격자 양성 및 양성교육 기관 현황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자 양성 및 양성교육 기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전국 문헌정보학과 현황, 사서교육원에서 배출된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정규과정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된 사서자격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3.1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국내에서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교의 문헌정보과, 4년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전공) 또는 도서관학과(전공),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 사서자격을 갖추어 취득할 수 있다. 사서자격제도가 법제화되어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1966년부터 2015년까지의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83,676명이다. 자격증별로 보면, 1급 정사서 수는 2,312명으로 전체의 2.8%, 2급 정사서 수는 50,032명으로 전체의 59.8%, 그리고 준사서 수는 31,332명으로 37.4%에 달한다(〈표 1〉참조).

사서자격자 양성 교육기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문헌정보학과 현황과 사서교육원에서 배출된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정규과정 이외 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연도	자격증의종류				소계	누계	누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갱신)**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1966-75	-	1,410	-	1,251	2,661	2,661	-	1,410	1,251
1976	-	212	-	305	517	3,178	-	1,622	1,556
1977	-	132	-	428	560	3,738	-	1,754	1,984
1978	-	144	-	491	635	4,373	-	1,898	2,475
1979	-	176	-	609	785	5,158	-	2,074	3,084
1980	-	268	-	685	953	6,111	-	2,342	3,769
1981	-	368	-	685	1,053	7,164	-	2,710	4,454
1982	-	226	-	814	1,040	8,204	-	1,936	5,268
1983	-	389	-	1,078	1,467	9,671	-	3,325	6,346
1984	-	579	-	873	1,452	11,123	-	3,904	7,219

연도	자격증의종류				소계	누계	누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갱신)**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1985	-	1,014	-	835	1,849	12,972	-	4,918	8,054
1986	-	1,248	-	633	1,881	14,853	-	6,166	8,687
1987	-	1,459	-	719	2,178	17,031	-	7,625	9,406
1988	-	1,558	-	732	2,290	19,321	-	9,183	10,138
1989	-	1,653	-	712	2,365	21,686	-	10,836	10,850
1990*	63	1,516	-	580	2,159	23,845	63	12,352	11,430
1991	54	1,587	(30)	774	2,415	26,260	117	13,939	12,204
1992	140	1,510	(1,611)	678	2,328	28,588	257	15,449	12,882
1993	100	1,467	(2,345)	841	2,408	30,996	357	16,916	13,723
1994	43	1,376	(31)	663	2,082	33,078	400	18,292	14,386
1995	51	1,353	(14)	758	2,162	35,240	451	19,645	15,144
1996	58	1,358	(17)	854	2,270	37,510	509	21,003	15,998
1997	43	1,255	(10)	719	2,017	39,527	552	22,258	16,717
1998***	35	1,310	(18)	783	2,128	41,655	587	23,568	17,500
1999	88	1,405	(16)	896	2,389	44,044	675	24,973	18,396
2000	55	1,396	(19)	986	2,437	46,481	730	26,369	19,382
2001	80	1,368	(24)	920	2,368	48,849	810	27,737	20,302
2002	75	1,471	(14)	984	2,530	51,379	885	29,208	21,286
2003	106	1,381	(28)	949	2,436	53,815	991	30,589	22,235
2004	96	1,420	(33)	1,030	2,546	56,361	1,087	32,009	23,265
2005	81	1,418	(26)	917	2,416	58,777	1,168	33,427	24,182
2006	105	1,449	(18)	841	2,395	61,172	1,273	34,876	25,023
2007	138	1,532	(12)	801	2,471	63,643	1,411	36,408	25,824
2008	115	1,509	(25)	790	2,414	66,057	1,526	37,917	26,614
2009	128	1,545	(20)	747	2,420	68,477	1,654	39,462	27,361
2010	126	1,569	(23)	752	2,447	70,924	1,780	41,031	28,113
2011	100	1,618	(33)	698	2,416	73,340	1,880	42,649	28,811
2012	112	1,633	(34)	725	2,470	75,810	1,992	44,282	29,536
2013	102	1,757	(20)	593	2,452	78,262	2,094	46,039	30,129
2014	92	1,941	(18)	617	2,650	80,912	2,186	47,980	30,746
2015	126	2,052	(22)	586	2,764	83,676	2,312	50,032	31,332
합계	2,312	50,032	(4,435)	31,332	83,676	-	-	-	-

*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1990년부터 정사서 자격증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 ()안은 종전의 정사서 자격증을 2급 정사서 자격증으로 갱신 교부한 숫자임

*** 1998년 8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64호)에 의거하여 자격증 발급 및 재교부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로 이관되었음

**** '도서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위탁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2-45호)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3.2 사서교육원에서 배출된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우리나라 사서교육원은 총 3개가 있으며, 그
중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에서 배

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배출현황은 1965년
부터 2015년까지(2008년 제외) 모두 10,182명
에 이른다. 이 중 1급 정사서가 76명, 2급 정사
서 2,936명, 준사서 5,971명, 사서교사 700명 등
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사서교육원에서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과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	2급				
1965	-	64	10	-	-	74
1966	-	22	10	-	-	32
1967	-	15	11	-	-	26
1968	-	9	13	-	-	22
1969	-	9	15	-	-	24
1970	-	10	20	-	-	30
1971	-	13	22	-	-	35
1972	-	28	27	-	-	55
1973	-	27	30	-	-	57
1974	-	27	46	-	-	73
1975	-	34	40	-	-	74
1976	-	46	56	-	-	102
1977	-	51	61	6	-	173
1978	-	93	139	8	-	298
1979	-	118	132	28	-	482
1980	-	151	218	60	-	614
1981	-	153	120	30	-	305
1982	-	53	157	30	-	240
1983	-	43	137	45	-	225
1984	-	66	138	72	-	276
1985	-	96	128	58	-	282
1986	-	112	112	68	-	292
1987	-	97	96	63	-	256
1988	-	115	96	60	-	271
1989	-	-	-	49	-	49
1990	12	70	149	31	-	250
1991	-	52	149	-	-	213
1992	6	41	105	-	-	146
1993	-	45	101	32	-	184

과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	2급				
1994	-	44	141	-	-	185
1995	9	45	92	-	-	137
1996	-	46	86	20	-	161
1997	10	40	103	-	-	143
1998	8	36	102	40	-	188
1999	9	30	95	-	-	133
2000	10	31	100	-	-	140
2001	6	35	101	-	-	146
2002	6	30	113	-	-	149
2003	-	44	145	-	-	195
2004	-	46	143	-	-	189
2005	-	52	187	-	-	239
2006	-	56	186	-	-	242
2007	-	55	183	-	-	233
2008	-	-	-	-	-	-
2009	-	89	274	-	-	363
2010	-	86	236	-	-	322
2011	-	99	243	-	-	342
2012	-	91	270	-	-	361
2013	-	103	285	-	-	388
2014	-	109	267	-	-	376
2015	-	109	281	-	-	390
계	76	2,936	5,971	700	0	10,182

* 2008년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3.3 정규과정 이외 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2010년 이후 정규과정 이외의 기관에서 많은 사서자격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2급 정사서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학점 은행제와 연계한 평생 교육에 의한 사서 양성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서자격자는 연간 평균 2,533명이 배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전문대학교의 심화과정 이수자를 제외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6.6%를 차지하며 정규교육과정 배출 현황을 위협할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점은행제의 경우 2013년부터 큰 폭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양성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구분		4년제	전문대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기타	계
2010년	1급	73	-	-	-	53	126
	2급	1,446	-	86	21	16	1,569
	준사서	49	465	236	-	2	752
	계	1,568	465	322	21	71	2,447
2011년	1급	54	-	-	-	46	100
	2급	1,450	-	99	39	30	1,618
	준사서	36	419	243	-	-	698
	계	1,540	419	342	39	76	2,416
2012년	1급	59	-	-	-	53	112
	2급	1,435	25	91	56	26	1,633
	준사서	25	430	270	-	-	725
	계	1,519	455	361	56	79	2,470
2013년	1급	58	-	-	-	44	102
	2급	1,437	23	103	164	30	1,757
	준사서	18	290	285	-	-	593
	계	1,513	313	388	164	74	2,452
2014년	1급	49	-	-	-	43	92
	2급	1,491	24	109	295	22	1,941
	준사서	37	617	267	-	-	617
	계	1,577	337	376	295	65	2,650
2015년	1급	72	-	-	-	54	126
	2급	1,483	48	109	374	38	2,052
	준사서	25	280	281	-	-	586
	계	1,580	328	390	374	92	2,764
합계		9,297	2,317	2,179	949	457	15,199
평균		61.2	15.2	14.3	6.2	3.0	100.0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4.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취업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총 14개 대

학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학에 반송용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KSDC DB(<http://ksdcdb.kr>)에서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지는 4년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2개교, 총 14개교를 대상으로 500부를 배포

〈표 4〉 학생 수요조사 설문 회수 현황

조사 영역	오프라인												온라인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I대	J대	K대	L대	
N	30	35	40	21	25	50	37	28	35	28	17	35	121
%	5.98	6.97	7.97	4.18	4.98	9.96	7.37	5.58	6.97	5.58	3.39	6.97	24.10
계	502												

하였으며 381부(76.2%)가 회수되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12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총 502건이 회수되었다(〈표 4〉 참조).

4.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항목 등을 참고하여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직업선택, 개인적 배경의 3개 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 조사내용의 27개 항목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영역 및 각 영역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는 곳, 취업 희망 분야, 수행하고 싶은 희망업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희망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의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속대학에서 취업을 위하여 어떤 것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하는 노력, 취업을 위한 준비 정도, 취업준비를 못하는 애로사항, 최초 희망 연봉, 소속 대학 위치, 가족이 거주하는 현 주소지, 취업희망지역, 취업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래의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장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현재의 사서 고용환경, 향후 사서의 취업진망, 사서취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5〉 참조).

〈표 5〉 학생 수요조사 설문내용 및 문항 구성

조사영역	세부내용	항목수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16
	취업하고 싶은 희망분야	
	수행하고 싶은 희망업무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소속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프로그램	

조사영역	세부내용	항목수
	사서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필요 요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요건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정도	
	취업준비를 못하는 애로사항	
	취업준비기간	
	최초희망연봉	
	소속 대학 위치	
	가족이 거주하는 현주소지	
	취업희망지역	
	취업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직업선택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7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사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현재 사서의 고용환경에 대한 생각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생각	
	사서 취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개인적 배경	성별	4
	학년	
	다전공(복수전공) 여부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	

4.3 통계분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설문문항별 빈도분석과 chi-square분석, 평균분석, ANOVA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2개 이상의 변인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chi-square분석 및 t검증을 시행하여 두 변인 간 관계가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검증하였고, 세 개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평균치 간 차에 관한 유의성 검증은 Scheffe 사후분석을 이용하였다.

5. 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다전공(복수전공) 여부,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를 산출하면서 일부 응답하지 않은 인원으로 인하여 전체의 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5.1.1 학생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

설문에 응답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성별

분포는 총 502명 중 남학생 142명(28.3%), 여학생 360명(71.7%)으로 여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 문헌정보학의 성별분포와 유사하다. 설문에 응답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학년별 분포는 3학년 179명(35.7%), 2학년 131명(26.1%), 1학년 109명(21.7%), 4학년 83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3-4학년이 262명(52.2%)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표 6〉 참조).

5.1.2 다전공(복수전공) 여부

다전공(복수전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전공이 87명(17.3%), 단일전공이 415명(82.7%)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단일전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다전공(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다전공 학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보육이 11명

(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문헌 8명(4.8%), 행정학 7명(4.2%), 경영학 6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 및 아동문헌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설문에 응답한 대학의 학과 중 한 학과가 아동문헌정보학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8〉 참조).

5.1.3 졸업 후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2급 정사서가 427명(8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사서 71명(14.1%), 기타 4명(0.8%)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5.2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취업희망 직장 및 준비도 영역은 총 16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진

〈표 6〉 학생 성별 분포

구분	구분	N	%
성별	남학생	142	28.3
	여학생	360	71.7
	총계	502	100.0
학년별	1학년	109	21.7
	2학년	131	26.1
	3학년	179	35.7
	4학년	83	16.5
	총계	502	100.0

〈표 7〉 다전공(복수전공) 여부

구분	N	%
다전공	87	17.3
단일전공	415	82.7
총계	502	100.0

〈표 8〉 다전공 학과 종류

구분	N	%	구분	N	%
경영학	6	3.6	아동보육	11	6.6
경제학	2	1.2	아동학과	1	0.6
관광경영	2	1.2	언론영상	1	0.6
교직	1	0.6	영어영문	1	0.6
국사학	1	0.6	응용정보통계학	1	0.6
국제통상학	1	0.6	전자물리	1	0.6
독어문화학과	1	0.6	정보보안	2	1.2
문화재학	1	0.6	정치외교	1	0.6
미디어	1	0.6	중국어	1	0.6
법학	3	1.8	철학	3	1.8
불어불문학	3	1.8	청소년학	1	0.6
사회복지	4	2.4	컴퓨터공학	3	1.8
생물교육과	1	0.6	컴퓨터과학	2	1.2
세무회계	1	0.6	통계학	1	0.6
소비자정보학과	1	0.6	평생 교육학	1	0.6
신문방송학과	3	1.8	한국어문학	1	0.6
심리학과	1	0.6	행정학	7	4.2
아동문헌	8	4.8	무응답	7	4.2

〈표 9〉 졸업 후 취득 자격증

구분	N	%
2급정사서	427	85.1
준사서	71	14.1
기타	4	0.8
총계	502	100.0

출할 수 있는 분야, 취업하고 싶은 희망분야, 수행하고 싶은 희망업무,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등이다.

5.2.1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분야 및 희망분야

문헌정보학과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를 3가지씩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진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공공도서관 412명(27.4%), 대학도서관 287명(19.1%), 국가도서관 283명(18.8%), 학교도서관 136명(9.0%),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이 73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공공도서관 300명(19.9%), 국가도서관 235명(15.6%), 대학도서관 196명(13.0%), 학교도서관 135명(9.0%)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이 100명(6.6%) 등의 순으로 유관기관보다는 도서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용품 및 비품회사는 9명

(0.9%)으로 선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일반회사, 도서관 건축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진출 가능한 분야와 진출 희망분야는 공통적으로 도서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점, 출판사, 포털회사는 진출 가능분야라고 인식하는 비율에 비해 진출 희망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서점은 11명(0.7%)이 진출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50명(3.3%)은 진출 희망 의사를, 출판사는 31명(2.1%)이 진출 가능을, 50명(3.3%)이 진출 희망 의사를, 포털회사는 7명(0.5%)이 진출 가능을, 58명(3.9%)이 진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취업진출 희망분야에 대한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점에서도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자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큐레이팅 인력은 서점뿐만 아니라 출판사 및 포털회사에도 높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10〉 참조).

문헌정보학과 전공자가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학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학년은 공공도서관 69명(63.3%), 국가도서관 63명

〈표 10〉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출 가능분야 및 희망분야(다중응답)

구분	진출 가능분야		진출 희망분야	
	N	%	N	%
국가도서관	283	18.8	235	15.6
대학도서관	287	19.1	196	13.0
공공도서관	412	27.4	300	19.9
학교도서관	136	9.0	135	9.0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언론사포함)	63	4.2	78	5.2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37	2.5	53	3.5
대학교(교수 및 연구원, 조교 등)	29	1.9	29	1.9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	73	4.8	100	6.6
DB구축 및 콘텐츠개발회사	57	3.8	59	3.9
도서관자동화시스템 회사	16	1.1	12	0.8
MARC 전문회사	20	1.3	18	1.2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12	0.8	28	1.9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11	0.7	50	3.3
출판사	31	2.1	68	4.5
포털회사	7	0.5	58	3.9
도서관용품 및 비품회사	4	0.3	9	0.6
일반회사 정보관리부분	17	1.1	34	2.3
기타(유사분야)	5	0.3	17	1.1
전공 외(자율적으로 기술)	6	0.4	27	1.8

(57.8%), 학교도서관 35명(32.1%) 등의 순으로, 2학년은 공공도서관 78명(59.5%), 국가도서관 63명(48.1%), 대학도서관 53명(40.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학년은 공공도서관 111명(62.0%), 대학도서관 70명(39.1%), 국가도서관 65명(36.3%) 등의 순으로, 4학년은 국가도서관 44명(53.0%), 대학도서관 43명(51.8%), 공공도서관 42명(5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 2학년, 3학년은 1순위로 공공도서관을 선호하고 4학년은 국가도서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다전공(이수전공) 이수여부별 진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희망분야의 분포를 조사하

였다. 진출 가능한 분야로 생각하는 곳을 살펴보면, 다전공자는 공공도서관 70명(80.5%), 대학도서관 51명(58.6%), 국가도서관 47명(54.0%) 등의 순으로, 단일전공자의 경우 공공도서관 342명(82.4%),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각각 236명(5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다전공자는 공공도서관 48명(55.2%), 대학도서관 35명(40.2%), 국가도서관 33명(37.9%) 등의 순으로, 단일전공자는 공공도서관 252명(60.7%), 국가도서관 202명(48.7%), 대학도서관 161명(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자별로 진출가능 및 희망분야 모두 공공도서관이 1순위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1〉 학년에 따른 취업 희망 취업분야 분포

학년별 희망분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N	%	N	%	N	%	N	%
국가도서관	63	57.8	63	48.1	65	36.3	44	53
대학도서관	30	27.5	53	40.5	70	39.1	43	51.8
공공도서관	69	63.3	78	59.5	111	62	42	50.6
학교도서관	35	32.1	41	31.3	42	23.5	17	20.5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언론사포함)	18	16.5	13	9.9	27	15.1	20	24.1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8	7.3	10	7.6	20	11.2	15	18.1
대학교(교수 및 연구원, 조교 등)	6	5.5	6	4.6	12	6.7	5	6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	18	16.5	26	19.8	43	24	13	15.7
DB구축 및 콘텐츠개발회사	13	11.9	16	12.2	21	11.7	9	10.8
도서관자동화시스템 회사	0	0	2	1.5	8	4.5	2	2.4
MARC 전문회사	1	0.9	3	2.3	13	7.3	1	1.2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7	6.4	7	5.3	12	6.7	2	2.4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8	7.3	13	9.9	26	14.5	3	3.6
출판사	23	21.1	16	12.2	23	12.8	6	7.2
포털회사	11	10.1	18	13.7	18	10.1	11	13.3
도서관용품 및 비품회사	2	1.8	3	2.3	3	1.7	1	1.2
일반회사 정보관리부분	10	9.2	9	6.9	9	5	6	7.2
기타(유사분야)	1	0.9	7	5.3	7	3.9	2	2.4
전공 외(자율적으로 기술)	4	3.7	9	6.9	7	3.9	7	8.4

〈표 12〉 다전공(복수전공)별 진출 가능 및 희망 분야 분포

구분	진출 가능분야				진출 희망분야			
	다전공		단일전공		다전공		단일전공	
	N	%	N	%	N	%	N	%
국가도서관	47	54	236	56.9	33	37.9	202	48.7
대학교서관	51	58.6	236	56.9	35	40.2	161	38.8
공공도서관	70	80.5	342	82.4	48	55.2	252	60.7
학교도서관	25	28.7	111	26.7	24	27.6	111	26.7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언론사포함)	11	12.6	52	12.5	15	17.2	63	15.2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7	8	30	7.2	7	8	46	11.1
대학교(교수 및 연구원, 조교 등)	5	5.7	24	5.8	4	4.6	25	6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	13	14.9	60	14.5	20	23	80	19.3
DB구축 및 콘텐츠개발회사	14	16.1	43	10.4	13	14.9	46	11.1
도서관자동화시스템 회사	2	2.3	14	3.4	5	5.7	7	1.7
MARC 전문회사	6	6.9	14	3.4	3	3.4	15	3.6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2	2.3	10	2.4	6	6.9	22	5.3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1	1.1	10	2.4	6	6.9	44	10.6
출판사	1	1.1	30	7.2	6	6.9	62	14.9
포털회사	1	1.1	6	1.4	14	16.1	44	10.6
도서관용품 및 비품회사	0	0	4	1	3	3.4	6	1.4
일반회사 정보관리부분	3	3.4	14	3.4	8	9.2	26	6.3
기타(유사분야)	1	1.1	4	1	6	6.9	11	2.7
전공 외(자율적으로 기술)	1	1.1	5	1.2	5	5.7	22	5.3

문헌정보학과 전공자가 진출 가능한 분야와 진출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졸업 후 취득자 격증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출 가능한 분야에서 2급 정사서는 공공도서관 348명(81.5%), 대학교서관 251명(58.8%), 국가도서관 249명(58.3%) 등의 순으로, 준사서는 공공도서관 62명(87.3%), 대학교서관, 학교도서관 각각 34명(4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자격증별 진출희망 분야에서 2급 정사서는 공공도서관 256명(60.0%), 국가도서관 217명(50.8%), 대학교서관 166명(3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사서의 경우 공공도서관 43명(60.6%), 학교도서관 32명(45.1%), 대학교서관 28명(3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자격증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

야와 취업하고 싶은 분야 모두 공공도서관이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5.2.2 직장 희망 업무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가 66명(1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열람 및 대출업무 59명(11.8%), 참고봉사업무 56명(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업무는 1명(0.2%)으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기타 업무로는 수서업무와 열람 및 대출업무, 분류목록, 주제전문서비스, 행정업무의 병행과 프로그래밍 개발 업무를 희망한다고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3〉 취득자격증별 진출하는 분야와 진출 희망분야 분포

구분	진출 가능분야						진출 희망분야					
	2급 정사서		준사서		기타		2급 정사서		준사서		기타	
	N	%	N	%	N	%	N	%	N	%	N	%
국가도서관	249	58.3	33	46.5	1	25	217	50.8	18	25.4	0	0
대학도서관	251	58.8	34	47.9	2	50	166	38.9	28	39.4	2	50
공공도서관	348	81.5	62	87.3	2	50	256	60	43	60.6	1	25
학교도서관	101	23.7	34	47.9	1	25	101	23.7	32	45.1	2	50
전문도서관(연구소자료실 언론사포함)	54	12.6	8	11.3	1	25	74	17.3	4	5.6	0	0
국가수준의 정보유통기관(KERIS, KISTI)	34	8	2	2.8	1	25	50	11.7	3	4.2	0	0
대학교(교수 및 연구원, 조교 등)	22	5.2	6	8.5	1	25	26	6.1	3	4.2	0	0
기록관 및 기록물 자료실	62	14.5	9	12.7	2	50	90	21.1	10	14.1	0	0
DB구축 및 콘텐츠개발회사	50	11.7	7	9.9	0	0	49	11.5	9	12.7	1	25
도서관자동화시스템 회사	14	3.3	2	2.8	0	0	12	2.8	0	0	0	0
MARC 전문회사	19	4.4	1	1.4	0	0	15	3.5	3	4.2	0	0
대행사(저널,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관)	11	2.6	1	1.4	0	0	22	5.2	6	8.5	0	0
서점(온·오프라인 서점 포함)	7	1.6	4	5.6	0	0	32	7.5	18	25.4	0	0
출판사	29	6.8	2	2.8	0	0	50	11.7	16	22.5	2	50
포털회사	7	1.6	0	0	0	0	51	11.9	4	5.6	3	75
도서관용품 및 비품회사	2	0.5	2	2.8	0	0	5	1.2	4	5.6	0	0
일반회사 정보관리부분	16	3.7	1	1.4	0	0	29	6.8	5	7	0	0
기타(유사분야)	3	0.7	2	2.8	0	0	15	3.5	2	2.8	0	0
전공 외(자율적으로 기술)	2	0.5	3	4.2	1	25	21	4.9	5	7	1	25

〈표 14〉 직장에서 희망하는 업무

구분	N	%
수서업무	55	11.0
분류목록업무	53	10.6
열람 및 대출업무	59	11.8
참고봉사업무(참고서비스)	56	11.2
주제전문서비스 업무	28	5.6
열람실관리(야간연장 근무 등) 업무	2	0.4
문화프로그램 등 업무	66	13.1
경영기획업무	14	2.8
영업업무	3	0.6
콘텐츠 구축업무	25	5.0
시스템관리업무	12	2.4
교육업무	11	2.2
연구업무	7	1.4
정보유통업무	6	1.2
행정업무	14	2.8
고객관리업무(CRM)	6	1.2

구분	N	%
웹마스터업무	6	1.2
PM업무(프로젝트매니저)	1	0.2
관리자 업무	13	2.6
상관없음	57	11.4
기타	8	1.6

5.2.3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 234명(46.6%), 적절하지 못하다 60명(12.0%)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육 과정이 희망직업에 진출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현장 실무와 동떨어진 교과과정으로 실무를 반영한 교과과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환경에 맞추어 도서관(문헌) 중심의 교과과정을 바꿔야 함 23.8%, 교과과정 간의 유사도가 높아 차별성 있는 교과과정의 도입이 필요함 19.0% 등의 순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16〉 참조).

2013년의 인식과 2016년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2016년에는 적절하다 46.6%로, 2013년 42.5%에 비하여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표 17〉 참조).

〈표 15〉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 여부

구분	N	%	M	std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7	1.4	3.40	0.820
적절하지 못하다	53	10.6		
보통이다	208	41.4		
적절하다	200	39.8		
매우 적절하다	34	6.8		

〈표 16〉 대학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	N	%
도서관(문헌)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변화가 필요함	5	23.8
현장과 동떨어진 교과과정으로 실무를 반영한 교과과정으로 변화가 필요함	6	28.6
교과내용 간의 유사도가 높아 차별성 있는 교과과정의 도입이 필요함	4	19.0
제도적으로 타자격증발급기관과의 차이 및 전문화 필요	2	9.5
진출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학습 할 내용도 다양해서 직업정신의 집중도가 떨어짐	1	4.8
정보원의 활용이나 자료조직 및 분류, 보관, 그리고 통계자료 활용은 어느 분야에 가서도 각광받는 역량임	1	4.8
필요없는 교과목과의 병행	1	4.8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음	1	4.8

〈표 17〉 연도별 교과과정 적절성 분포

구분	2013년		2016년	
	N	%	N	%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8	1.7	7	1.4
적절하지 못하다	43	9.4	53	10.6
보통이다	187	40.7	208	41.4
적절하다	179	39.0	200	39.8
매우 적절하다	16	3.5	34	6.8
잘 모르겠다	24	5.2	-	-
전체	457	100.0	502	100.0

5.2.4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대학의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평균 4.0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3.99, 주제별 전문사서 연구과정(또는 주제별 전문사서 실습) 3.95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8〉 참조).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으로는 실습관련 교과목이 30.8%, 실무 관련 교과목이 30.8%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실제 직업 환경에서의 경험과 업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4%의 응답자는 진로 관련 교과목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9〉 참조).

〈표 18〉 추가되길 희망하는 교육과정

구분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문화프로그램 관련(도서관 문화행사, 프로그램기획 등)	3	0.6	12	2.4	141	28.1	240	47.8	106	21.1	3.86	.79
정보소외계층서비스(장애인 및 다문화서비스 포함)	2	0.4	13	2.6	134	26.7	260	51.8	93	18.5	3.85	.76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1	0.2	3	0.6	114	22.7	242	48.2	142	28.3	4.04	.74
도서관홍보마케팅	3	0.6	21	4.2	154	30.7	222	44.2	102	20.3	3.79	.83
웹3.0/e커뮤니티	3	0.6	14	2.8	174	34.7	217	43.2	94	18.7	3.77	.80
도서관이용자 교육	5	1	20	4	167	33.3	205	40.8	105	20.9	3.77	.86
전문사서론	3	0.6	14	2.8	142	28.3	230	45.8	113	22.5	3.87	.81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0.4	7	1.4	128	25.5	224	44.6	141	28.1	3.99	.79
문헌정보학과 캡스톤 디자인	5	1	23	4.6	231	46	175	34.9	68	13.6	3.55	.82
시멘틱 웹 시스템 구축론	4	0.8	17	3.4	213	42.4	199	39.6	69	13.8	3.62	.79
주제별 전문사서 연구과정(또는 주제전문사서 실습)	4	0.8	11	2.2	127	25.3	226	45	134	26.7	3.95	.82
기타	48	9.6	14	2.8	389	77.5	33	6.6	18	3.6	2.92	.78

〈표 19〉 대학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

구분		N	%
진로 관련 교과목	사서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흥미, 관심을 높일 과목	2	15.4
	저학년부터 어느 쪽으로 진로를 나갈 것인지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과목		
실습 관련 교과목	각 학년별로 도서관 실습	4	30.8
	실무에 이용되는 행정관련 교육과정		
	현장업무		
	기록물 보존방법 체험		
전공 심화 과정	정보처리/관리 심화 과정	1	7.7
실무 관련 교과목	독서지도	4	30.8
	도서관 공간기획 및 비품활용법		
	출판 관련		
	전국 도서관 현황 등 통계 관련 교과목		
법 관련 과목		1	7.7
창의성 부족		1	7.7

5.2.5 희망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지도(지원) 프로그램은 채용정보제공이 341명(12.3%), 자격증 준비반 256명(9.2%), 면접준비특강 235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멘토링에서는 현장 전문가 멘토링이 356명(12.8%), 교수 멘토링 156명(5.6%), 선후배간 멘토링 141명(5.1%) 순이며, 인턴십(직장취업프로그램)은 사서실습이 291명(10.5%), 단기인턴 288명(10.4%), 장기인턴 173명(6.2%)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전공 외 타분야 취업 소개 프로그램, 인턴활동에 대한 확대 지원, 주기적인 현장 전문가 및 교수 멘토링, 전공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는 강의 프로그램

지원, 사서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배와의 멘토링 기획, 사서실습 포함 정보처리관련 실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학교에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학년별로 조사한 결과, 1학년은 현장 전문가 멘토링이 83명(76.1%), 사서실습, 단기인턴 각각 75명(68.8%), 채용정보제공 72명(6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채용정보제공 96명(73.3%), 현장 전문가 멘토링 90명(68.7%), 단기인턴 80명(6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현장 전문가 멘토링 125명(69.8%), 채용정보제공 116명(64.8%), 사서실습, 자격증 준비반 각각 107명(5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현장 전문가 멘토링 58명(69.9%), 채용정보제공 57명(68.7%), 단기인턴 37명(44.6%)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 3학년, 4학년은 현장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았고, 2학년의 경우 채용정보 제공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표 22〉 참조).

〈표 20〉 설문자들이 희망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다중응답)

구분		N	%
진로지도(지원)	직무적성검사	208	7.5
	채용정보제공	341	12.3
	자격증 준비반	256	9.2
	면접준비특강(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235	8.5
	취업캠프	93	3.4
	진로면담(진로개발컨설팅)	209	7.5
취업멘토링	현장 전문가 멘토링	356	12.8
	교수 멘토링	156	5.6
	선후배간 멘토링	141	5.1
직장취업프로그램	사서실습(3-4주[2-3학점])	291	10.5
	단기인턴(2-3개월[6-9학점])	288	10.4
	장기인턴(6개월[15학점 이하])	173	6.2
	기타 귀하의 취업을 위해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적어주세요	26	0.9

〈표 21〉 설문자들이 희망하는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N
전공 외 타분야 취업소개	3
인턴활동 확대	1
주기적인 현장 전문가 및 교수 멘토링	1
전공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는 강의	1
사서 임용 통과 선배와의 멘토링 기회	1
사서실습 포함 정보처리관련 실습지원 프로그램	1

〈표 22〉 학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분포(다중응답)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N	%	N	%	N	%	N	%
직무적성검사	47	43.1	55	42	81	45.3	25	30.1
채용정보제공	72	66.1	96	73.3	116	64.8	57	68.7
자격증 준비반	53	48.6	62	47.3	107	59.8	34	41
면접준비특강(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46	42.2	60	45.8	98	54.7	31	37.3
취업캠프	21	19.3	23	17.6	35	19.6	14	16.9
진로면담(진로개발컨설팅)	48	44	62	47.3	68	38	31	37.3
현장 전문가 멘토링	83	76.1	90	68.7	125	69.8	58	69.9
교수 멘토링	36	33	47	35.9	51	28.5	22	26.5
선후배간 멘토링	32	29.4	41	31.3	48	26.8	20	24.1
사서실습(3-4주[2-3학점])	75	68.8	77	58.8	107	59.8	32	38.6
단기인턴(2-3개월[6-9학점])	75	68.8	80	61.1	96	53.6	37	44.6
장기인턴(6개월[15학점 이하])	44	40.4	41	31.3	56	31.3	32	38.6
기타	5	4.6	2	1.5	11	6.1	8	9.6

5.2.6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사서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업요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턴이나 실습이 평균 4.10으로 나타나 가장 큰 취업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관리 3.76, 어학 능력과 각종 자격증 취득이 3.75, 학업성적 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기타 취업요건으로는 인맥, 인성,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표 24〉 참조).

5.2.7 희망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력 관리 4.10, 면접준비 3.76, 각종 자격증 취득과 인턴근무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경력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취업을 위한 기타 노력으로는 독서 멘토링, 성적관리,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 수강, 공시준비 등이 나타났다(〈표 26〉 참조).

〈표 23〉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요건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학업성적	5	1	24	4.8	195	38.8	215	42.8	63	12.6	3.61	0.80
어학능력	4	0.8	22	4.4	152	30.3	244	48.6	80	15.9	3.75	0.80
각종 자격증 취득	6	1.2	18	3.6	157	31.3	235	46.8	86	17.1	3.75	0.82
인턴이나 실습	2	0.4	9	1.8	76	15.1	267	53.2	148	29.5	4.10	0.74
경력관리	3	0.6	25	5	160	31.9	217	43.2	97	19.3	3.76	0.84
봉사(사회기여)활동	18	3.6	55	11	237	47.2	141	28.1	51	10.2	3.30	0.92
종교	256	51	129	25.7	75	14.9	23	4.6	19	3.8	1.84	1.08
별다른 준비 없음	185	36.9	124	24.7	153	30.5	25	5	15	3	2.13	1.06
기타	74	14.7	15	3	385	76.7	16	3.2	12	2.4	2.75	0.83

〈표 24〉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기타 취업요건

구분	N	%
인맥	1	14.3
인성	1	14.3
추천서	1	14.3
도서관 관련 활동 포트폴리오	1	14.3
타분야 및 타직종 사례 및 멘토, 인턴십	1	14.3
다양한 행사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생각들	1	14.3
공무원시험	1	14.3

〈표 25〉 졸업 후 취득하게 될 자격증에 따른 진출 희망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취업노력

구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보통		노력하였다		매우 노력하였다		M	std
	N	%	N	%	N	%	N	%	N	%		
어학준비	17	3.39	89	17.73	194	38.65	176	35.06	26	5.18	3.61	0.80
각종 자격증 취득	19	3.78	95	18.92	177	35.26	171	34.06	40	7.97	3.75	0.80
인턴근무	56	11.16	176	35.06	143	28.49	90	17.93	37	7.37	3.75	0.82
경력관리	42	8.37	162	32.27	180	35.86	79	15.74	39	7.77	4.10	0.74
면접준비	43	8.57	184	36.65	192	38.25	61	12.15	22	4.38	3.76	0.84
봉사(사회기여)활동	43	8.57	106	21.12	192	38.25	108	21.51	53	10.56	3.30	0.92
종교	248	49.4	101	20.12	115	22.91	20	3.98	18	3.59	1.84	1.08
별다른 준비 없음	85	16.93	57	11.35	292	58.17	40	7.97	28	5.58	2.13	1.06
기타	74	14.74	19	3.78	392	78.09	9	1.79	8	1.59	2.75	0.83

〈표 26〉 취업을 위한 기타 노력

구분	N	%
독서 멘토링을 통한 어린이 독서 지도에 대한 경험	1	20.0
성적관리	1	20.0
빅데이터 관련 교양수업 수강	1	20.0
사회성 향상	1	20.0
공시준비	1	20.0

5.2.8 설문 응답자의 취업 준비 정도

진출하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취업 준비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충분하지 못하다가 285명(56.8%), 충분하다가 31명(6.2%)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취업 준비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연도별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을 위하여 취업 준비는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경우 2013년에는 75.6%, 2016년에는 56.8%로 나타나, 취업준비 정도가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5.2.9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취업정보가 없어서 3.31, 원하는 직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 3.22, 시간이 없어서 2.82, 생활비 마련 때문에 2.58, 적성에 맞지 않아서 2.57 등의 순으로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취업준비 시 나타나는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스스로의 의지부족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일자리 없음 26.7%, 외국취업에 대한 고민, 군입대로 인한 단절 13.3%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표 30〉 참조).

〈표 27〉 학생 응답자의 취업 준비 정도

취업준비정도	N	%	M	std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59	11.8	2.39	0.797
충분하지 못하다	226	45.0		
보통이다	186	37.1		
충분하다	26	5.2		
매우 충분하다	5	1.0		

〈표 28〉 연도별 학생의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을 위한 취업준비 정도

구분	2013년		2016년	
	N	%	N	%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129	28.1	59	11.8
충분하지 못하다	218	47.5	226	45.0
보통이다	71	15.5	186	37.1
충분하다	5	1.1	26	5.2
매우 충분하다	5	1.1	5	1.0
전혀 하지 않았다	31	6.8	-	-
전체	457	100.0	502	100.0

〈표 29〉 학생의 취업 애로사항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취업정보가 없어서	17	3.4	65	12.9	197	39.2	181	36.1	37	7.4	3.31	.913
적성에 맞지 않아서	74	14.7	166	33.1	187	37.3	42	8.4	28	5.6	2.57	1.026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100	19.9	211	42	141	28.1	29	5.8	16	3.2	2.30	.960
생활비 마련 때문에	93	18.5	140	27.9	172	34.3	66	13.1	26	5.2	2.58	1.10
원하는 직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	34	6.8	74	14.7	197	39.2	133	26.5	59	11.8	3.22	1.10
시간이 없어서	42	8.4	135	26.9	212	42.2	85	16.9	23	4.6	2.82	.968
기타	63	12.5	19	3.8	388	77.3	8	1.6	19	3.8	2.80	.822

〈표 30〉 취업 준비 시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구분	N	%
일자리가 없음	4	26.7
외국취업에 대한 고민	2	13.3
의지부족	7	46.7
군입대로 인한 단절	2	13.3

5.2.10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 58명(11.6%), 1년 이상~2년 미만 25명(5.0%), 5년 이상 5명(1.0%), 3년 이상~4년 미만 4명(0.8%), 2년 이상~3년 미만 3명(0.6%)으로 나타나,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1〉 참조).

5.2.1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희망 연봉

최초 연봉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82명(36.3%)으로 가장 높았고,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55명(30.9%),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83명(16.5%),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36명(7.2%),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23명(4.6%), 3,500만

원 이상 15명(3.0%), 1,500만원 미만 8명(1.8%)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연도별 최초 희망 연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도 36.3%로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5.2.12 소속 대학 위치, 거주지, 취업 희망 지역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 97명(19.3%), 부산광역시 90명(17.9%),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73명(14.5%), 대구광역시 58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 거주지는 경기도 109명(21.7%), 서울특별시 70명(13.9%), 부산광역시 69명(13.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1명(8.2%), 광주광역시 30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학생의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구분	N	%
1년 미만	58	11.6
1년 이상~2년 미만	25	5.0
2년 이상~3년 미만	3	.6
3년 이상~4년 미만	4	.8
5년 이상	5	1.0

〈표 32〉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희망 연봉

구분	N	%
1,500만 원 미만	8	1.6
1,5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155	30.9
2,000만 원 이상~2,500만 원 미만	182	36.3
2,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83	16.5
3,000만 원 이상~3,500만 원 미만	23	4.6
3,500만 원 이상	15	3.0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36	7.2

〈표 33〉 연도별 학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초 희망 연봉

구분	2013년		2016년	
	N	%	N	%
1,500만 원 미만	7	1.5	8	1.6
1,5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147	32.0	155	30.9
2,000만 원 이상~2,500만 원 미만	159	34.6	182	36.3
2,5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74	16.1	83	16.5
3,000만 원 이상~3,500만 원 미만	23	5.0	23	4.6
3,500만 원 이상	13	2.8	15	3.0
기관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31	6.8	36	7.2
전체	457	100.0	502	100.0

취업 희망 지역은 서울특별시 192명(38.2%), 경기도 77명(15.3%), 부산광역시 70명(13.9%), 대구광역시 37명(7.4%), 광주광역시 29명(5.8%), 인천광역시 20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대학, 거주지, 취업 희망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대

학 위치 및 현 거주지에 비해 가장 높게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소속 대학 위치, 현 거주지, 취업 희망 지역의 일치도가 비교적 높았다. 충청북도는 해당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취업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4〉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위치, 현 거주지, 취업 희망 지역

구분	소속 대학 위치		현 거주지		취업 희망 지역	
	N	%	N	%	N	%
서울특별시	73	14.5	70	13.9	192	38.2
부산광역시	90	17.9	69	13.7	70	13.9
대구광역시	58	11.6	41	8.2	37	7.4
인천광역시	5	1.0	25	5.0	20	4.0
대전광역시	4	0.8	5	1.0	10	2.0
광주광역시	51	10.2	30	6.0	29	5.8
울산광역시	0	0.0	17	3.4	7	1.4
세종특별자치시	0	0.0	1	0.2	2	0.4
경기도	97	19.3	109	21.7	77	15.3
강원도	0	0.0	9	1.8	2	0.4
충청북도	73	14.5	21	4.2	17	3.4
충청남도	7	1.4	10	2.0	5	1.0
전라북도	7	1.4	8	1.6	3	0.6
전라남도	2	0.4	23	4.6	2	0.4
경상북도	28	5.6	41	8.2	15	3.0
경상남도	7	1.4	20	4.0	8	1.6
제주특별자치도	0	0.0	3	0.6	6	1.2

〈표 35〉 취업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전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일자리창출	3	0.6	2	0.4	50	9.96	177	35.26	270	53.78	4.41	0.73
일자리체험 프로그램	4	0.8	10	1.99	116	23.11	225	44.82	147	29.28	4.00	0.82
자격증 취득 도움 프로그램	3	0.6	13	2.59	128	25.5	232	46.22	126	25.1	3.93	0.81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4	0.8	4	0.8	125	24.9	229	45.62	140	27.89	3.99	0.80
해외연계 프로그램	5	1	22	4.38	170	33.86	178	35.46	127	25.3	3.80	0.90
취업박람회 등	10	1.99	26	5.18	180	35.86	183	36.45	103	20.52	3.68	0.92
기타	65	12.95	9	1.79	390	77.69	18	3.59	20	3.98	2.84	0.84

〈표 36〉 취업을 위한 기타 필요사항

구분	N	%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2	40.0
취업 알선	1	20.0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도생의 정규직 채용	1	20.0
보통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이 필요	1	20.0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잘 구축된 커리큘럼	1	20.0

5.2.13 취업을 위한 개선사항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창출이 4.41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체험 프로그램 4.00,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3.99, 자격증 취득 도움 프로그램 3.93 등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표 35〉 참조).

직장에 취업을 위한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알선, 정규직 채용, 직업 인식 개선 등이 나타났다(〈표 36〉 참조).

5.3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직무수행 능력

직장선택 영역은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래의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사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현재 사서의 고용환경에 대한 생각, 사서 취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5.3.1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직장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무조

진 4.31, 정년보장, 복리후생 4.20, 보수 4.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정규직 여부, 사람 간의 인성,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개개인의 열정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표 37〉 참조).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의 적성이 4.31,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3.93, 사회적 대우 및 인식 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복지, 인맥, 조직의 발전 가능성, 직업의 생존 가능성, 하고 싶은 직업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표 38〉 참조).

5.3.2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직장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에

〈표 37〉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직장 내 조직·환경적 요인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보수	2	0.4	3	0.6	71	14.14	280	55.78	146	29.08	4.13	0.69
근무조건	1	0.2	2	0.4	39	7.77	258	51.39	202	40.24	4.31	0.65
정년보장	1	0.2	6	1.2	67	13.35	248	49.4	180	35.86	4.20	0.72
조직의 발전가능성	5	1	8	1.59	131	26.1	234	46.61	124	24.7	3.92	0.81
복리후생	1	0.2	3	0.6	66	13.15	256	51	176	35.06	4.20	0.70
조직문화	4	0.8	11	2.19	104	20.72	226	45.02	157	31.27	4.04	0.82
기타	51	10.16	6	1.2	331	65.94	71	14.14	43	8.57	3.10	0.95
직급	11	2.19	39	7.77	234	46.61	174	34.66	44	8.76	3.40	0.84
자기발전 기회부여	4	0.8	11	2.19	147	29.28	231	46.02	109	21.71	3.86	0.81
해외연수 및 재교육 기회제공	5	1	37	7.37	167	33.27	188	37.45	105	20.92	3.70	0.92
배치부서	4	0.8	17	3.39	147	29.28	235	46.81	99	19.72	3.81	0.81
기타	64	12.75	10	1.99	391	77.89	16	3.19	21	4.18	2.84	0.84

〈표 38〉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전공일치여부	19	3.78	43	8.57	137	27.29	215	42.83	88	17.53	3.62	0.99
교육정도	12	2.39	20	3.98	172	34.26	251	50	47	9.36	3.60	0.81
취업분야 지식 및 기술 수준	5	1	12	2.39	87	17.33	305	60.76	93	18.53	3.93	0.74
개인의 적성	2	0.4	3	0.6	53	10.56	223	44.42	221	44.02	4.31	0.71
직장과의 거리	8	1.59	35	6.97	151	30.08	224	44.62	84	16.73	3.68	0.89
사회적 대우 및 인식	8	1.59	27	5.38	151	30.08	231	46.02	85	16.93	3.71	0.86
동문(지인) 재직 유무	86	17.13	138	27.49	188	37.45	61	12.15	29	5.78	2.62	1.08
기타	66	13.15	6	1.2	398	79.28	20	3.98	12	2.39	2.81	0.80

5.3.3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4.29, 컴퓨터활용 능력 4.14, 정보검색 능력 4.10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5.3.4 사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사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실성 4.36, 책임감 4.33, 서비스정신 4.28, 친화력 4.14, 긍정적인 마인드 4.12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참조).

5.3.5 사서 고용환경에 대한 의견

현재 사서 고용환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 249명(49.6%), 비정규직의 일자리조차 없다 104명(20.7%), 비정규직은 꾸준히 있는 편이다 101명(20.1%),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 42명(8.4%), 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6명(1.2%) 순으로 나타났으며, 70.3%가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연도별 사서의 고용환경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2013년 45.8%에서 2016년 49.6%로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역시 2013년 11.1%에서 2016년 2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취업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42〉 참조).

5.3.6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152명(30.3%), 보통이다 152명(30.3%),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117명(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취업 전망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39〉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정보검색 능력	1	0.2	4	0.8	69	13.75	298	59.36	130	25.9	4.10	0.66
커뮤니케이션 능력	1	0.2	3	0.6	51	10.16	239	47.61	208	41.43	4.29	0.69
프레젠테이션 능력	2	0.4	28	5.58	192	38.25	210	41.83	70	13.94	3.63	0.80
기획력(계획서 작성)	2	0.4	8	1.59	133	26.49	263	52.39	96	19.12	3.88	0.74
교육능력	1	0.2	17	3.39	169	33.67	239	47.61	76	15.14	3.74	0.76
글쓰기 능력	5	1	13	2.59	197	39.24	211	42.03	76	15.14	3.68	0.80
행정 능력(기안, 보고서)	3	0.6	8	1.59	109	21.71	277	55.18	105	20.92	3.94	0.74
컴퓨터활용 능력	1	0.2	5	1	69	13.75	275	54.78	152	30.28	4.14	0.69
IT기기운용 능력	1	0.2	13	2.59	134	26.69	232	46.22	122	24.3	3.92	0.79
외국어능력	5	1	21	4.18	175	34.86	214	42.63	87	17.33	3.71	0.83
기타	67	13.35	9	1.79	389	77.49	23	4.58	14	2.79	2.82	0.82

〈표 40〉 사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M	std
	N	%	N	%	N	%	N	%	N	%		
서비스정신	1	0.2	1	0.2	50	9.9	252	50.2	198	39.4	4.28	0.66
헌신성	5	1	19	3.7	141	28	219	43.6	118	23.5	3.85	0.86
긍정적인 마인드	2	0.4	4	0.8	85	16.9	247	49.2	164	32.6	4.12	0.70
책임감	0	0	1	0.2	45	8.9	243	48.4	213	42.4	4.33	0.64
성실성	0	0	0	0	37	7.3	246	49	219	43.6	4.36	0.62
이해심	0	0	3	0.6	90	17.9	264	52.5	145	28.8	4.10	0.70
협동심	0	0	13	2.5	116	23.1	240	47.8	133	26.4	3.98	0.77
인내심	1	0.2	7	1.3	99	19.7	247	49.2	148	29.4	4.06	0.75
창의성	3	0.6	25	4.9	169	33.6	189	37.6	116	23.1	3.78	0.88
추진력	3	0.6	18	3.5	130	25.9	240	47.8	111	22.1	3.87	.81
리더십	4	0.8	31	6.1	182	36.2	197	39.2	88	17.5	3.67	0.86
변화에 대한 도전정신	3	0.6	23	4.5	134	26.6	203	40.4	139	27.6	3.89	0.88
변화에 대한 개방성	3	0.6	10	1.9	108	21.5	213	42.4	168	33.4	4.06	0.83
친화력	2	0.4	6	1.2	86	17.1	233	46.4	175	34.8	4.14	0.76
기타	71	14.1	7	1.3	372	74.1	28	5.5	24	4.7	2.85	0.90

〈표 41〉 고용환경에 대한 의견

구분	N	%
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6	1.2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	249	49.6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	42	8.4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101	20.1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104	20.7

〈표 42〉 연도별 학생의 사서 고용현황에 대한 의견

구분	2013년		2016년	
	N	%	N	%
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1	0.2	6	1.2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없다	210	45.8	249	49.6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	39	8.5	42	8.4
비정규직 일자리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88	19.2	101	20.1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51	11.1	104	20.7
모르겠다	69	15.0	-	-
전체	457	100.0	502	100.0

〈표 43〉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
모르겠다	73	14.5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152	30.3
보통이다	152	30.3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117	23.3
매우 발전가능성이 있다	8	1.6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모르겠다와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악순환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및 자동화시스템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등을 우려하였고, 사서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전문성에 대한 결여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연도별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2013년 37.5%에서 2016년 24.9%로 응답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사서의 취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표 45〉 참조).

〈표 44〉 향후 사서의 취업전망에 대한 학생의 기타의견

설문문항	기타의견
모르겠다	비정규직 악순환
	사서의 전문화 약화
	도서관 외 취업 스펙트럼의 무지
	문헌정보학 전공자, 사서교육원 수료의 배출인원과 수요 불균형
	도서관정책 변화 미지수
	사서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결여
	일자리 축소의 지속화
	시스템 자동화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일자리 축소 및 고용환경의 질 저하
	전공의 전문성 결여
	인터넷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확대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분위기 강화
	전자도서관 사용 증가
	도서관 관심 저하 및 사회적 인식 결여

〈표 45〉 연도별 사서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

구분	2013년		2016년	
	N	%	N	%
모르겠다	60	13.1	73	14.5
앞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105	22.9	152	30.3
보통이다	118	25.7	152	30.3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다	160	34.9	117	23.3
매우 발전가능성이 있다	12	2.6	8	1.6
전체	457	100.0	502	100.0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서 인력의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 현황을 기초로 하는 도서관 현장의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고, 사서 양성현황 및 취업현황과 사서 수요조사 및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서 취업률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취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학생 및 사서, 그리고 유사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 및 사서가 취업준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취업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사서취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서e마을이 유일하며, 정규직, 계약직, 알바직, 유사직 등으로 취업 형태를 구분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취직공고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가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취직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게시되는 채용공고 중에는 직위나 담당업

무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충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정보 공시에 있어서 채용분야, 전형 방법, 담당 업무, 급여, 요구되는 직무능력, 근무환경, 지원 자격, 지원대상, 근무시간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구직자가 자신이 지원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과 취업정보 강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구직자의 취업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서취업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구인구직의 용이성을 높임으로써 취업률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정보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사서의 취업형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취업분야의 다양성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노력은 물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정보를 최대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시간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제공 및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서관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이 요구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은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디지털 및 웹 정보원 및 아카이빙 포함) 4.0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3.99, 주제별 전문사서 연구과정(또는 주제별 전문사서 실습) 3.95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다소 최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교육과정, 미래 직장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술의 응용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과정, 그리고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교육과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의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정보 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교육과정이 가장 이상적일지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경우 현장에 대한 적응능력은 매우 높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계의 교육과정이 보다 진보적이며, 현장의 서비스 내용을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고,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발전적으로 설계하

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또한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는 주로 전문대학교에서 교육 및 육성이 가능한 직무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4년제 대학교에의 적용에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교육기관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현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역시 학과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수정 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은 사서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에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과 학과별 추구하는 목표를 반영하여 수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사서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 현황을 기초로 하는 도서관 현장의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서

양성, 교육체계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 교육은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분야의 속성상 도서관 및 관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 현황 파악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전략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취업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미취업자의 취업을 못하는 원인, 취업에 있어서 전공일치도가 낮은 원인, 취업률이 감소하는 원인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전략과 전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현장의 사서들, 관련 협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 등의 긴밀한 협조도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및 현장 근무자들은 취업을 준비를 위한 애로사항으로 취업정보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정보 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 홈페이지 및 취업 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성이 나타났다. 더불어 근무자를 채용할 때 제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근무환경, 수행업무, 요구되는 직무능력, 연봉 등이 높게 나타나 구직 시 해당 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직장 및 준비도 분석을 통해 볼 때, 대다수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과 어학준비에 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취업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취업정보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어학준비를 병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직무수행능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학생들은 사서의 고용환경 자체에 대하여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이마저도 향후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사람들 중 전문성 결여라는 사회적 인식과 자동화시스템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서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노영희 외. 2013.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43-167.
- [2] 안인자. 2003. 사서교사(사서)의 직무분석을 통한 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79-95.
- [3] 안인자 외. 2012. 사서직 진출분야별 전공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73-402.
- [4] 이신호, 양혜술. 201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91-113.
- [5] 이종문. 2012.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자의 취업실태 분석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25-13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oh, Younghee et al. 2013. "LIS Employment Prospects: LIS Students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43-167.
- [2] Ahn, In-ja. 2003. "Developing a Curriculum of School Librarians Using a Job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3): 79-95.
- [3] Ahn, In-Ja et al.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Cours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areer Path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73-402.
- [4] Lee, Shin-Ho and Yang, Hae-Sool.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Civil Servan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91-113.
- [5] Lee, Jong-Moon. 2012.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25-139.